

문장호 화백의 '실경산수'를 만난다

월전미술문화재단, 나주 출신 문장호 화백 7주기 기획초대전 18~26일 서울 한벽원미술관...미 발표작 '백두산천지' 등 전시

나주 출신 회재(希載) 문장호 화백(1938~2014)은 시서화(詩書畫)에 모두 능한 예인이었다. 4살 때부터 조부 율장규 선생 밑에서 한학을 배운 그는 허행면 화백에게 사군자와 산수의 기초를 익힌 후 의재 허백련의 문하로 들어가 가르침을 받으며 작품 세계를 일구었다.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자신만의 필법으로 고유한 예술세계를 만들어간 문장호 화백의 7주기를 맞아 그의 작품 세계를 돌아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재)월전미술문화재단 기획초대전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18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종로구 한벽원미술관에서 관람객을 만난다. 월전미술문화

재단은 한국화의 거장 월전(月田) 장우성(1912~2005) 화백이 설립한 기관으로 한국화의 맥을 이어온 문화백의 전시가 장 화백의 예술혼이 살아있는 한벽원미술관에서 열리는 것은 의미가 있다.

'사의적(寫意的) 사생(寫生)의 세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1970년대 작품부터 2000년대 작품까지 두루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백두산 풍광을 시와 함께 표현한 '백두산 천지'와 역동적인 모습이 인상적인 '현애유폭(懸崖流瀑)' 등 처음 공개된 작품들이 눈길을 끈다.

초창기 형상 너머의 본질의 포착에 주력했던 문장호 화백은 80년대 들어서면서 남도의 다채로운 모습이 담긴 실경(實景)을 서예적 선과 특유의 리듬감이 가미된 자신만의 기법으로 그려나가며 작품에 현장감을 부여했다.

1990년 한국선면예술가협회를 조직하기도 했던 문장호 화백은 생전에 부채 그림을 많이 그렸다. 고풍스러운 멋이 묻어나는 예술성과 쓰임새가 어우러진 부채 그림에 담긴 한복의 산수화는 깊은 울림을 준다.

문장호 화백은 금호문화상과 대한민국 육군문화훈장을 받았으며 10년 넘게 조선대와 전남대 특임강사를 역임, 후학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선생의 제자들로 이뤄진 수목회 회장으로 회원들과 함께 이번 전시를 준비한 홍성국 작가는 "전시회를 위해 작품을 고르고 많은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승의 진면목을 다시 보게됐다"며 "실경의 대가였던 스승의 작품이 요즘 한국화의 흐름에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희재 문장호 화백



현애유폭

재의 작품 세계는 우리에게 전통이란 무엇이고, 현대란 무엇인가 질문을 던진다"고 말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무등산 원효사 역사·불교문화

전남대·원효사, 오늘 학술대회

무등산 원효사에서 출토된 유물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전남대 호남학연구원(원장 이성원 교수)은 대한불교조계종 원효사(주지 해정 스님)와 함께 18일 '무등산 원효사의 역사와 불교 문화유산'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천년 고찰인 원효사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원효사의 유물을 살펴 문화재 승격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아울러 불교문화유산과 국립공원 무등산을 연계한 문화유산의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학술대회에서는 '원효사의 역사와 불교문화의 특징과 의의'(김병인 전남대 사학과 교수)와 '무등산 원효사 출토유물-불상을 중심으로'(최인선 순천대 사학과 교수), '원효사 불교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방안'(최원종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연구교수), '무등산권 자연 및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활용'(김종일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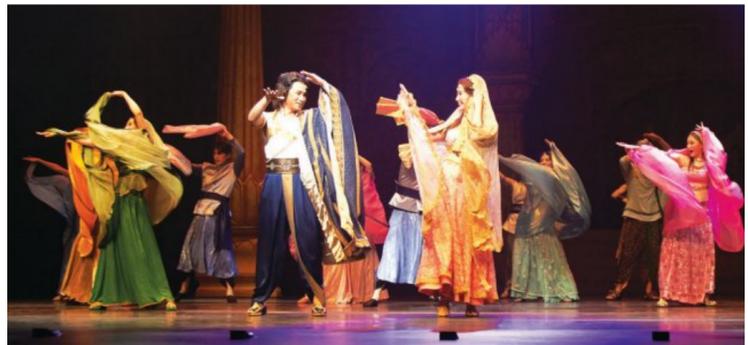
이번 학술대회는 제한된 현장 참여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문의062-530-271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화순 고인돌 유적

부처의 생애·가르침 뮤지컬 '싯다르타'



18~20일 ACC 예술극장

뮤지컬 '싯다르타'가 광주 시민과 만난다. 2600년 전 인류 최초로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전하는 '뮤지컬 싯다르타(Musical The Life of Siddhartha)'가 18일 오후 3시·7시30분, 19~20일 오후 2시·7시 예술극장 극장1에서 총 6차례 열린다. 뮤지컬 전문 제작사 ㈜엔에스엠시·MC서울이 제작한 2021년 '싯다르타'는 2600년 전 인도 아대륙에서 왕자로 태어나 전통성왕의 길을 버리고 새로운 구도의 길에서 깨달음을 얻은 붓다의 이야기로 세 번째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초연이었던 2019년 무대보다 훨씬 감동적이고 연출과 짜임이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드라마틱한 구성과 다양한 장르의 음악, 새로운 무대 기술이 어우러진 오리지널 뮤지컬로 왕자 싯다르타에서 깨달음을 이룬 붓다로 변화하는 결정적 세 번의 순간에 초점을 맞춘다. 아소다라를 신부로 맞이하던 19세의 그날, 출가를 결심하던 29세의 그날, 깨달음을 얻은 35세의 그날 등이다. 싯다르타 역은 김대웅, 노희찬이 맡았고, 마라역 박유경, 찬나역 고현경, 우팔라역 윤하얀 등을 비롯해 김재준·박혜민·박수현·박태성 등이 출연한다. 공연은 앞서 의정부 예술의전당과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렸으며, 광주 공연 이후 군포, 부산, 대구에서 이어진다. 문의 1661-4191.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5·18 추모연극 '애꾸눈 광대' 200회 무대



21~23일 광주아트홀

5·18 광주민주화운동 30주였던 지난 2010년 초연 이후 꾸준히 무대에 오른 연극 '애꾸눈 광대'가 200회를 맞았다. 나라사랑 예술단은 5·18 추모연극 '애꾸눈 광대-어느 봄날의 약속'을 오는 21일~23일 오후 7시 30분 광주아트홀(광주시 동구 황금동 100)에서 공연한다. 200회 공연은 23일 펼쳐지며 이날 공연에는 5·18과 관련된 인물들이 초대된다. 작품은 1979년 10월26일 궁정동에서 독재정권의 중식을 알리는 총성으로 시작해 1980년 5월 광주에 들어온 공수부대와 옛 전남도청에서 마지막까지 민주주의를 외쳤던 시민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올해 공연은 지금까지 금기로 남아있던 도청 지하

실 문제를 다룬다. 또 이종기 변호사와 문용동 전 도사, 고등학생 시민군 안종필과 문재학 등 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예술적 요소를 가미했다. 특히 당시 도청을 지키다 고문 후유증으로 세상을 등진 김형철 선생의 막내딸 김연우씨가 안무와 무용을 맡아 의미를 더한다. 한편, 작품은 5·18 당시 부상을 당한 이지현(예명 이세상)씨의 실화를 바탕으로 2010년 5월27일 금남로에서 1인극 형태로 처음 선보였다. 이후 시민들의 응원이 더해져 1인극에서 2인극, 3인극, 6인극, 8인극, 10인극으로 진화해왔다. 2012년부터는 매년 10회이상 공연을 무대에 올렸다. 공연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70명 선착순 입장 가능하다. 무료관람. 문의 062-227-7440.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호남지역 청동기문화

국립나주박물관, 오늘 학술대회

호남지역에는 청동기 시대 고인들이 약 2만 2000개 존재한다. 우리나라 전체 분포량의 66%를 차지할 만큼 청동기 문화의 보고다. 또한 청동기를 포함한 철기 문화는 오늘날의 남도 문화를 일군 토대가 됐다.

국립나주박물관은 호남지역 청동기를 비롯한 고대문화를 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가 17~18일 나주문화재연구소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다.

학술대회에서는 '호남지역 초기철기시대 문화'(한수영, 호남문화재연구원), '전남지역 초기철기시대 주거와 무덤'(김진영, 고대문화재연구원), '전북지역 초기철기시대 유적의 특징과 지역성'(정수옥, 문화재청)의 발표가 예정돼 있다.

아울러 '중국과 일본의 청동기 시대 농경과 호남지역'을 주제로 '중국 고고학을 통한 벼 재배의 기원과 중국 문명에 대한 인식 변화'(정원페이, 중국 절강성문화고고연구소), '일본과 호남지역의 청동기문화'(미야자토 오사무, 일본 고치대학)의 발표가 사전 녹화된 영상으로 진행된다.

발표 이후에는 영남대학교 이창규 교수를 좌장으로 발표자들과 윤호필(상주박물관), 천선행(전라문화유산연구원), 이동희(인제대학교), 조진선(전남대학교), 김권구(계명대학교) 등의 종합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17일은 청동기 문화에 대한 집중적인 발표가 있었다. 50명 내외로 제한하며 예약 인원만 입장 가능하다. 회의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유튜브에서 중계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수상 혁신사마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